

1.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기도문과 다른 것은, 주기도문은 가르쳐진 것이고, 이것은 드러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기도를 할 때, 적어서 할 수도 있고 또 그냥 나오는대로 할 수도 있지요? 설교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이가 이 둘 사이에 있다는 말입니다.
2. 이 긴 기도를 어떻게 다 적었는지가 사실 의문입니다. 주기도문이야, 머리 좋은 사람은 한 번 듣고 기록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예수의 대제사장적 기도는 26절까지 있습니다. 한 번 듣고 다 복기하기엔 좀 무리지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3. 분명 요한에게는 어떤 비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긴 기도를 들으면서도, 그 전체를 다 쫓 수 있는 실마리 같은 것이지요. 그런 것은, 이 기도를 관통하는 일관된 주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기도를 드리는 목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 만 집어낼 수 있다면, 시편 119편 같은 것도 외울 수 있겠지요.
4. 그 실마리가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6절 이하를 보면, 그 비슷한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소유냐?”라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것이냐? 아들의 것이냐? 또는 세상의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두고 예수께서는 다방면으로 이 기도를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5. 6절을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세상이 존재하는데, 그 안에는 구별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예수는 그들을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예수께 속하게 된 자라는 소리지요! 도대체 누구일까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6. 이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6절 하반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신 자**”임을 재차 확인하여 주시지요. 그 때문에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7.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란, 주인이 바뀐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래 세상에 속해 있었지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들을 자기 아들에게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요.
8. 어느날 그들의 삶에 예수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렸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뒤로했지요. 이건 시키거나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소속이 바뀌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부르지요.
9.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듭남이 먼저냐? 부르심이 먼저냐?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 먼저냐?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먼저냐? 무엇이 원인인냐?의 문제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닭이냐 달걀이냐?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 거듭남이 먼저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10. 6절 고티머리에 예수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먼저 들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들었고 누군가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들려준 것이 먼저고, 들은 것은 그 다음입니다. 문제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이런 순서로 보인다는 것이지요.
11. 그러나, 6절 초반에 기도하셨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나타냈다”**고. 무슨 말입니까? 나타내기 전에, 세상에서 내게 주신 일이 있었다는 소리지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께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12. 그러니까 제 1 원인을 찾자면, 우리의 신분이 세상에 속한 자였다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서야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이 따릅니다. 그 끝에 가서야 비로소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것이지요.
13.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이 생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그제서야 비로소 모든 감각이 살아나서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요. 그러한 새생명으로 태어나야, 새 삶을 살아갈 힘도 생기는 법입니다.
14. 복음은, 제자 삼으라는 명령 이전에, 그 명령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소유였다가 예수께 주신 바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 이 순서의 비밀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드리는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어떻게 꿰어야 하는지도 잘 아는 것입니다.
15. 예수께서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들에게 나타낸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16. 이름이란 곧 하나님을 지칭하여 부르는 한 소리지요? 그 소리가 제자들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들에게 알려졌지요. 그 이름이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소리지요. 말씀이신 “예수”의 다른 이름이 있다면, 그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인 것입니다.
17.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한 아기로 세상에 태어나셨지요. 뿐만 아니라 그가 제자들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함께 먹고 자고 가르치고 여행하셨지요. 예수는 그들의 삶이 된 것입니다.
18.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누굴 두고 하는 말씀입니까? 제자들인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무엇이라고 했지요? 세상 중에서 내게 준 사람들! 또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신 것은 또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듣고 알게 된 그 제자들이지요. 그들이 안 것입니다.
19. 그래서 종합하자면, 제자들이란,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께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음을 아는 자들이지요. 자기들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자기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신 자가 누구지 아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아버지께서 자기들을 주신 예수, 곧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소립니다.

20. 이걸 다른 말로 할까요?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은 자기들의 스승 예수가, 하나님께서 주시마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인 줄 알았다는 말입니다. 8절 기도에 따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알고 믿은 것입니다.
21. 예수와 함께 이 예루살렘 언덕길을 오르면서, 그와 함께 동거동락하고, 그와 함께 광야를 지나가고, 그와 함께 밥도 먹고 잠도 잔 그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우리 대신 받고 돌아가실, 하나님 그 자신임을 안 것이지요. 또 심지어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도 동행하신 그가 바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22. 이 과정, 알고 믿는 과정을 우리가 제자훈련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자훈련 캠프에는 누가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가는 길이지요. 거듭난 성도가 가는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단 문제가 있다면, 세상에 속한 자가, 아직 하나님이 예수께 소유권을 넘기지도 않았는데, 제자훈련을 갖다는 것이지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인 것입니다.
23. 바로 그런 자를 위하여서라도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절, “우리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4. 하나가 된다는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교회도 나오고 제자훈련도 한다는 것을 알지요. 이런 자와 지식과 믿음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5.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입장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이지요.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진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항상 목자이신 예수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면,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어서 거둬나게 하시고, 또 예수께서 나타내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된 자들마저도 흩어질 것입니다.
26. 예수께서는 그렇게 흩어진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가 된다는가, 무슨 융합을 한다든가 연합한다는 말이 아니지요. 이걸 정말 복음에서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께서 나타내시는 아버지의 이름을 듣고, 예수를 아는 제자훈련의 과정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27.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한 구절을 읽어 드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이르리니”